

News Release

지금 발표

문의처: Janice Huang
IW Group, inc.
(310) 289-5526

아태계 아메리칸 파트너십 AAPI 종교 커뮤니티 내의 금연 구역 조성을 위해 노력

가주 전역의 11 개의 종교 단체들, 금연 구역과 행사 방침 마련

SAN FRANCISCO – 아태계 아메리칸 건강 포럼(Asian and Pacific Islander American Health Forum)이 주관하고 가주 보건국의 Tobacco Control Section 에서 자금을 제공하는 아태계 아메리칸(AAPI) 파트너십 프로젝트는 지난 3 년간 캘리포니아 전역의 AAPI 커뮤니티에서 활동 중인 아시아 아메리칸 교회들과 종교 단체들을 대상으로 펼친 계몽 캠페인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종교 단체들이 금연 구역을 정하고 행사를 가질 때 금연을 권장하는 방침을 마련하고 장려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AAPI 파트너십은 샌디에고, 오렌지 카운티, 로스앤젤레스, 센트럴 밸리,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캠페인 직원과 상담원들의 노력으로 가주 내 4 개의 아시아 민족 중 11 개 종교 단체들로부터 협조 서약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AAPI 파트너십의 발표에 의하면 이같이 금연 방침을 후원하는 11 개 종교 단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계

Asian Adventist Fellowship, 베이커스필드
Mira Mesa 중국 침례 교회, 샌디에고
Shepherd of the Valley 장로 교회, 하시엔다 하이츠

한국계

나침반 교회, 부에나 파크

하와이 원주민/태평양 군도 주민 계

Congregational Christian UCC of Hacienda Heights, 하시엔다 하이츠
Grace Samoan Assembly of God, 알티시아
Grace Samoan Church of the Nazarene, 롱비치

베트남계

East Bay American Buddhist, 오크랜드

Saint Boniface Church, 샌프란시스코

Saint Callistus Church, 가든그로브

Saint Polycarp, 스탠튼

“저희 교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방침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Andy Ng 목사는 말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 신자들에게 간접 흡연이 끼치는 악영향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은 중요하므로 이 방침은 필요한 것입니다.”

APIAHF의 만성질환 프로그램 디렉터인 Roxanna Bautista 씨는 “AAPI 파트너십의 이번 캠페인 성과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AAPI 커뮤니티에서 교회나 종교단체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 단체들의 리더들에게 아웃리치 함으로서, 그들의 신자들에게 흡연과 간접 흡연의 위험성에 대해 계몽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주 보건국에 의하면 흡연이 가주 내에서 예방 가능한 사망원인 1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년 약 40,000 명이 흡연과 관련된 병으로 사망하며 이는 매일 약 118 명인 것입니다.

AAPI의 흡연율은 1990년부터 28%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가주 AAPI 인구의 흡연율이 기타 커뮤니티의 흡연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흡연은 계속해서 아태계 아메리칸 커뮤니티의 주요 보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005년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국 남성은 28%의 가장 높은 흡연율을 보였으며 같은 기간에 가주 남성 전체는 17%의 흡연율을 나타냈습니다.

문화적 요인에 의한 흡연과 다른 흡연자들에게 노출이 많은 아시아 국가로부터 온 이민자들은 이와 같이 특이한 문제를 보유하고 있어 AAPI 커뮤니티의 흡연인구를 줄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APIAHF의 만성질환 프로그램 담당자인 Edgar Ednacot 씨는 “문화적 문제와 흡연 및 간접 흡연의 위험성에 관한 인식 부족이 이 같은 방침을 종교 단체에서 택하게 하는 활동에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종교 단체의 리더들 및 멤버들과 협력관계를 위해 문화적으로 적합하고 민감하게 접근하였습니다. 흡연과 간접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었으며, 금연 방침이 흡연에 의한 죽음과 질병으로부터 멤버들과 신도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에 관해 토론하였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API 파트너십은 이번 계몽 캠페인을 6월에 마무리 지으며, 다른 종교 단체들도 이번 교회 금연구역 캠페인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그들의 커뮤니티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를 돕기 위해 tool kit을 개발하였습니다. “퍼즐 같이 맞추기 (Piecing Together the Puzzle)”라고 명명한 이 tool

kit에는 안내서, 금연 방침과 서명서 샘플, 설문 도구와 참고자료 디렉토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위해선 <http://www.apiahf.org/> 를 방문해 주십시오.

-oOo-

아태계 아메리칸 건강 포럼(Asian and Pacific Islander American Health Forum)이 주관하는 아태계 아메리칸(AAPI) 파트너십은 AAPI 커뮤니티의 금연과 웰니스를 장려하는 주 전역의 프로젝트입니다. 1990년 첫 APIAHF의 흡연 프로그램 등장 이후, 본 기관은 AAPI 커뮤니티 내의 흡연으로 인한 악영향에 대해 관여하고 있는 500여개 이상의 비영리 서비스 단체, 의료 서비스 제공자 및 로컬 보건 기관들의 지식, 기술, 경험 등을 통합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API 파트너십의 목표는 거주 내 AAPI 커뮤니티의 금연 운동과 생활 양식 확장은 물론, AAPI 및 주류 사회 미국인에게도 금연 프로그램의 확장을 위해 문화적, 언어적으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AAPI 파트너십은 교육, 수용능력 개발, 그리고 옹호 활동 등을 통해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